
- 건강한 밥상 · 행복한 농민, 지역먹거리와 함께하는 -

마서동네장터 운영

충남 서천군 마서면

생산자 직거래 「마서동네장터」 운영

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지역먹거리 제공을 통한 지역민과 도시민의 건강 증진과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

□ 추진 배경

-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정체불명의 먹거리 이용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지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
⇒ 먹거리 얼굴있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
- 지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민장터를 개장하여 전통문화를 회복하고 지역주민 간 소통 강화
⇒ “나눠먹기, 추억의 만남” 주제로 장터 주막 개설, 마을 대항 윷놀이, 투호 등 민속놀이 운영
- 유통 환경의 변화로 붕괴된 전통적인 가족농의 부활을 통하여 침체되어 있는 농업·농촌의 활력 모색
⇒ 소규모 영세농가의 주민소득 향상

□ 마서동네장터 운영 개요

- 개장일시 : 매월 15일과 30일 (08:00 ~ 13:00)
- 장 소 : 서천군 마서면사무소 광장
- 주 관 : 마서동네장터생산자협의회(130명)
- 후 원 : 마서면이장단협의회, 마서면새마을부녀회, 마서면
- 내 용
 -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『농수산물 100% 유통 농민장터』
 - 지역의 안전한 농수산물을 이용한 『장터 주막』 운영
 -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무료 공연하는 『장터 음악회』 개최
 - 지역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『벼룩시장 및 체험장터』 운영
 - 수도권 도시민 초청 『농산물 직거래 장터』 운영

□ 운영 실적

구 분	매출액(천원)	생산자 참여(명)	소비자 방문(명)
계	229,126	2,158	24,070
2009년 (18회)	96,280	1,030	10,750
2010년 (22회)	89,645	679	8,770
2011년 (11회)	43,201	449	4,550

- 민간 주도의 ‘마서동네장터생산자협의회’ 창립(‘10. 2. 26)
- 수도권 도시민 초청 농·도 교류 직거래 장터(2회/400명)
- 기획할인전 운영(딸기, 토마토, 오이, 단호박, 찰옥수수, 감자 등)
- 귀농인장터, 어린이벼룩시장, 문화공연, 건강상담 등 병행 운영

□ 운영 성과

- 지역먹거리 100%만 유통되는 마서동네장터 운영 (51회)
 - ‘09.4.15 처음개장(매월 2회)후 생산자 2,158명 고객 24,070명 참여
- 지역주민 안전한 먹거리 제공,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(229백만원)
- 먹거리 유통단계 단축으로 환경오염 저감(저탄소 녹색성장)
- 지역먹거리 유통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- 지역먹거리 유통 활성화로 농산물 다품종 소량생산 식부체계 변화
-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다수의 주민 참여로 지역 명소화
- 전통장터를 통한 지역공동체 향상, 장터공연으로 지역문화 활성화
- 어린이 벼룩시장 및 체험행사 개최로 지역교육의 산실 역할

□ 애로사항 및 대책

- 민간 조직체의 참여의지 약화
 - 운영의 마인드 제고를 통한 생산자 조직 역량 강화
- 출하 품목의 단순성과 중복상품으로 인한 조기 폐장화
 - 다품종 다량생산자의 계획생산과 다량 출하 유도
- 볼거리·즐길거리와 먹을거리의 단순성
 -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으로 방문고객의 오감만족 환경조성
 - 농산물의 가공식품 확대 개발로 부가가치 증대
- 장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부족
 - 시설 설비와 운영비 지원 등으로 장터 활성화

□ 향후 계획

- 생산자 주도의 『마서동네장터생산자협의회』 운영 활성화
-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『주말토요장터』로의 전환
- 친환경인증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『친환경농산물장터』 운영
- 신선한 제철 먹거리 공급할 『계획생산 농가』 육성
- 국립생태원 관광객과 연계한 『생태관광형』 장터 운영
- 지역공동체 향상을 위한 『문화 장터』 이벤트 강화

